

2007년도 상반기

# 제11회 한국어능력시험

The 11th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일반한국어(S-TOPIK)

고급(Advanced) B

**2**교시 이해 (듣기, 읽기)

수험번호(	(Registration No.)	
이 름 (Name)	한국어(Korean)	
	영 어(English)	



# 유 의 사 항

# Information

1. 시험 시작 지시가 있을 때까지 문제를 풀지 마십시오.

Do not open the booklet until you are allowed to start.

2. 수험번호와 이름은 수험표와 같도록 정확하게 적어 주십시오.

Write your name and registration number on the answer sheet same as on your test voucher.

3. 답안지를 구기거나 훼손하지 마십시오.

Do not fold the answer sheet; keep it clean.

- 4. 답안지의 이름, 수험번호 및 정답의 기입은 컴퓨터용 펜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Use the optical mark reader(OMR) pen only.
- 5. 정답은 답안지에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십시오.

Mark your answer accurately and clearly on the answer sheet.

answer sheet ① ● ③ ④

6. 문제를 읽을 때에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Keep quite while answering the questions.

7. 질문이 있을 때에는 손을 들고 감독관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When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raise your hand.

# 듣기 (1번 ~ 30번)

# ※ [1~4]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 시오. (각 3점)

- 1. ① 그런데 벽지를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 ② 그럼, 필요 없는 짐은 다 놓고 가세요.
  - ③ 그럼, 저도 짐 정리를 다시 해 봐야겠어요.
  - ④ 그렇지요.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 2. ① 알려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② 경제적으로는 넉넉지 않습니다.
  - ③ 끝난 후에 받아 가시면 됩니다.
  - ④ 돈 부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 3. ① 그럼, 택배 회사에서 아직 안 보낸 건가요?
  - ② 그래요. 도착하는 대로 회사로 연락 주십시오.
  - ③ 그런데 아직도 물건을 안 보냈으면 어떡해요?
  - ④ 알겠어요. 물건에 이상이 있으면 교환해 드릴게요.
- 4. ① 50여 년 동안 영화계를 빛낸 안정기 씨입니다.
  - ② 작년에는 상을 못 받아서 정말 섭섭했습니다.
  - ③ '하루여행'에서 시인 역을 한 조연성 씨입니다.
  - ④ 오늘의 저를 있게 해 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5~7]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5. (3점)
  - ① 지하철
  - ③ 효도 관광

- ② 고속 철도
- ④ 휴대전화

- 6. (4점)
  - ① 외동아들의 외로움
  - ③ 부모의 사랑과 관심

- ② 형제의 유무와 성격
- ④ 독립심을 기르는 습관

- 7. (4점)
  - ① 교수님의 평소 생활
- ② 교수님의 성품과 인생관
- ③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
- ④ 교수님에 대한 아픈 기억
- ※ [8~10]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8. 들은 내용과 <u>다른</u> 것을 고르십시오. (3점)
    - ① 테이프 가시를 빼 준다.
    - ② 커피콩 냄새를 없애 준다.
    - ③ 땅콩버터 머릿결을 좋게 한다.
    - ④ 바나나 껍질 구두를 닦는다.
  - 9.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3점)
    - ① 물속과 바닥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 ②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 ③ 신발이 벗겨지면 떠내려가게 둬야 한다.
    - ④ 맨발로 물놀이를 하면 떠내려가기 쉽다.

- 10.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4점)
  - ① 새끼가 태어나면 수컷은 먹이를 찾아 떠난다.
  - ② 펭귄은 태어나자마자 바다에 들어가 생활한다.
  - ③ 남자는 펭귄의 따뜻한 부성애에 감동을 받았다.
  - ④ 남자는 펭귄의 생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 ※ [11~13] 다음을 듣고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 시오.

## 11. (3점)

- ①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 한다.
- ② 책상이 깨끗해야 생각도 잘 난다.
- ③ 성공하려면 책상이 깨끗해야 한다.
- ④ 정리 안 된 책상에도 질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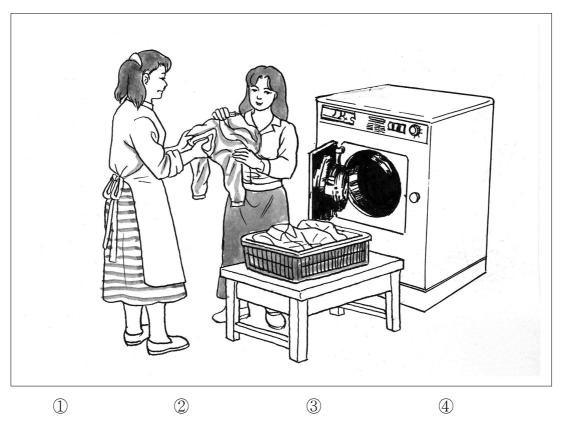
#### 12. (4점)

- ① 일한 만큼 보수를 줘라.
- ②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라.
- ③ 일의 참 의미를 발견해라.
- ④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줘라.

#### 13. (3젂)

- ①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 ② 99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 ③ 나이가 들수록 즐거운 일을 찾아야 한다.
- ④ 얼마를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 [14~15]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각 4점)14.



15.



※ [16~18] 대화가 끝난 후에 남자가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 십시오.

## 16. (3점)

- ①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한다.
- ②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한다.
- ③ 공간과 관련된 일을 찾는다.
- ④ 친구 말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 17. (3점)

- ① 척추 교정 수술을 받는다.
- ② 똑바른 자세로 누워 잔다.
- ③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
- ④ 체형이 좋아지는 운동을 한다.

#### 18. (4점)

- ① 전셋집보다 월세를 구한다.
- ② 소비성 지출을 줄여 나간다.
- ③ 목돈 마련을 위해 보험을 든다.
- ④ 모든 지출을 저축성 지출로 바꾼다.

#### ※ [19~20]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각 4점)

- 19. ① 천재를 만드는 가정교육
  - ② 초등학교 조기 영어 교육
  - ③ 한국대 전체 수석, 송하연 군
  - ④ 만 7세 천재 소년, 대학교 합격

- 20. ① 화폐 교체, 위조 화폐 방지
  - ② 세금 낭비, 금융기관의 책임
  - ③ 잠자는 10원짜리, 유통 노력 절실
  - ④ 귀한 몸 10원 동전, 부족 현상 심각
- ※ [21~22] 다음 강의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 21. 남자가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실험 결과

- ② 전문가의 말
- ③ 논리적 타당성
- ④ 전통적인 관습
- 22. 들은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라.
  - ② 작은 일들은 모아서 처리해라.
  - ③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를 찾아라.
  - ④ 하루 30분 잠자는 시간을 줄여라.
- ※ [23~24]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 23.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남자는 헌혈을 처음 하러 왔다.
    - ② 남자의 건강 상태는 원래 좋지 않았다.
    - ③ 남자는 혈압이 높아 검사를 하러 왔다.
    - ④ 남자는 혈압이 높아 헌혈을 할 수 없다.
  - 24. 남자의 태도 변화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불안하다 → 안심이 된다 ② 믿음직하다 → 의심스럽다
    - ③ 호의적이다 → 불만이 많다 ④ 자신만만하다 → 걱정스럽다

### ※ [25~26]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 25. 남자는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 ①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문제를 반박하고 있다.
  - ③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④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26. 남자가 저가 항공기의 문제로 든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 ① 결항이 잦다.

- ② 소음이 심하다.
- ③ 운항 시간이 길다. ④ 편안함이 떨어진다.

## ※ [27~28] 다음 토론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7. 여자의 생각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4점)
  - ① 토론하는 것보다 실천이 필요할 때다.
  - ② 담뱃값이 크게 오르는 것은 좋지 않다.
  - ③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줄어든다.
  - ④ 청소년들은 흡연을 낭만적으로 생각한다.
- 28. 이 토론의 앞 부분에 있었던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3점)
  - 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말자.
  - ② 학생들에게 많은 용돈을 주지 말자.
  - ③ 흡연은 국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 ④ 담배를 피우는 것은 멋있는 것이 아니다.

# ※ [29~30] 다음 강의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 29. 여자가 보고 있는 사진과 관계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청록색

② 도자기

③ 상감기법

- ④ 꽃과 나무
- 30. 강사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수강생의 예상 반응을 고려했다.
  - ②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 ③ 강의 내용보다 방법에 신경을 썼다.
  - ④ 강의 준비를 잘 못해서 당황해한다.

# 위기 (31번 ~ 60번)

# ※ [31~32] 다음은 신문 기사의 제목입니다.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31.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 45만 달성 청신호

- ①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45만을 넘어섰다.
- ②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의 수가 45만 명을 무난히 넘을 것이다.
- ③ 제주도의 관광객을 45만 명까지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④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45만 명이 넘었다.

32. 북한과의 회담 성사, 대북 사업 정상화 초읽기

- ① 대북 사업의 성공을 위해 남북한의 정상들이 곧 만날 예정이다.
- ② 북한과의 회담이 이루어져서 곧 대북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다.
- ③ 대북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계기로 북한과 회담을 개최하였다.
- ④ 북한과의 회담이 이루어졌지만 대북 사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33~34] 다음은 어떤 종류의 글인지 고르십시오. (각 3점)

33. 지난 8월에 25번째 개인전을 연 화가 황정현. 그는 '세월전'이라는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세 번째 산문집 '세월'을 냈다.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여러 번 봐야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펴낸 그의 산문들도 여러 번 읽어야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인지 이번 산문집에서는 한결 간결하고 쉬운 필체로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① 책 소개문

② 독서 감상문

③ 전시회 소개문

④ 미술 작품 해설

이번 어린이날에 풍선에 꽃씨를 담아 날리는 행사를 한다는 기사를 34. 보았다. 행사 주최자는 풍선이 천연 소재로 만들어져 자연에서 분해 되므로 걱정이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환경부에 문의해 보니, 풍선이 썩는 데는 최소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꽃씨를 심기 위해 꽃씨 값보다 비싸고, 썩는 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는 풍선을 하늘에 날려 보내는 이러한 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대상을 평가하는 글

② 주장을 내세우는 글

③ 대상을 설명하는 글

④ 체험과 감상을 쓴 글

# ※ [35~36] 다음 글의 주제문을 고르십시오. (각 4점)

35. ①최근 어느 학자는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마음가짐 의 표현이며 건강의 지표라고 주장하였다. ① 걷기는 뇌와 밀접한 관 계가 있어서, 뇌기능의 퇴화를 막아 주고 행복 지수도 높여 준다고 한다. ⓒ 따라서 걷는 것도 이제는 과학적이어야 한다. ② 올바른 걷기 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까지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bigcirc$ 

(2)

(3) (E)

(4) (三)

36. ① 요즘 과학의 발달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과 대중 사이를 연결하는 대중 과학은 거의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①그 러나 과학은 대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② 과학은 다른 모든 분야의 문화 활동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뒷받침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과학이 그 인재를 대중으로부터 얻어 성장하는 것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 [37~38]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각 4점)

- 37. 산에 오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듯 산행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자신의 체력적인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가는 이들은 결국 얼마 가지 않아 결국 등산을 포기하고 하산하곤 한다. 자신의 속도는 무시한 채 다른 사람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절경을 볼 수 없다. 이들에게는 앞 사람의 뒤꿈치만 보일 뿐이다. 우리들이 자신만의 보폭, 자신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 ① 등산과 전쟁의 유사점
  - ② 산악 대장의 희생정신
  - ③ 산악 등반 시 주의할 점
  - ④ 자기 속도를 지키는 삶
- 38. 많은 사람들이 약이란 몸에 좋은 것이며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것이 다 낫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약이란 쓰기에 따라 독이될 수도 있는 강력한 화학 물질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에 대한 기존의 고정 관념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것이라 단번에 쉽게 깨뜨리기가 어렵다.
  - ① 약을 남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 ② 오래된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 ③ 약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이롭다.
  - ④ 아플 때는 약을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낫다.

※ [39~41] 다음 글에서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십시오. (각 4점)

39. '뒤돌아보는 능력'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능력이라고 한다. ( ⊃ ) 우리가 간혹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못 다 이룬 일에 대한 반성과 후회 때문이 아닐까. ( □ ) 특히 자녀에게는 이러한 조언이 꼭 필요하다. ( □ ) 못 다한 일에 대해 미련을 갖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 )

------ 〈보 기〉 -----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뒤돌아보지 마라'고 이야기해야 할 때가 있다.

40. 오늘날 의대생들은 그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충분한 실습 기회를 갖기 어렵다. ( ① ) 로봇 모형 인간과 비디오 게임 등을 활용한 실습 과정을 운영하는 병원은 전 세계에 300여 개가 있다. ( ① ) 이곳에서 의대생들은 로봇 산모의 아기 출산을 돕기도 하고 모형 아기 팔에 주사를 놓기도 한다. ( © ) 또한 당뇨나 심장 질환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로봇 환자를 수술하기도 한다. ( ② )모든 로봇에는 인공장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인공 혈액이 흐르고 호흡장치까지 달려 있다.

----- 〈보 기〉----

이에 로봇을 이용한 실습이 해결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① ① ② © ③ © ④ ②

41. 어린 시절에 접하는 자연이야말로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주된 원천 이며 감각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장소다. ( つ ) 어린이 는 만지고, 듣고, 보고, 냄새 맡고, 심지어 먹기도 하는 등 자연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된다. ( ① ) 이와 같은 풍부한 경험들은 두뇌 에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한다. ( 🖒 ) 밖에서 놀 시간과 공간이 줄어들면서 어린이들은 힘들이지 않고도 많 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인 자연을 잃을 위험에 처 해 있다. ( 🖹 )

----- 〈보 기〉----

그렇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교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되는 쉬는 시간을 단축하는 일이 흔하다.

- 4) ②

# ※ [42~43] 다음을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각 3점)

- 42. 고전음악에도 훌륭한 음악과 그렇지 못한 음악이 있다. 하이든이 무 수한 교향곡을 작곡했지만 그의 모든 작품이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것 은 아니다.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이 라고 하면 고전음악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 나 대중음악 가운데에도 받아들이고 감상할 가치가 충분한 것들이 있 으며 이들을 무조건 폄하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은 아무것도 없다.
  - ① 대중성을 띤 작품이 훌륭한 음악 작품이다.
  - ② 고전음악과 대중음악을 고루 발전시켜야 한다.
  - ③ 대중음악에도 훌륭한 작품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④ 훌륭한 음악과 그렇지 못한 음악을 가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 43. 인간의 두뇌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나빠지는 것일까? 물론 나이가 들수록 평균적인 지능은 떨어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20~30대는 새로운 지식을 배워 축적하는 뇌의 기능이 발달돼 있는 데 비해, 40대에는 연결하는 능력, 추리력이 발달한다. 정보와 정보 사이의 연결 고리를 발견하는 범위가 조금씩 넓어지고, 지금까지 전혀 별개라고 여겨진 것들이 일순간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 ① 나이와 두뇌의 기능 간에는 상관성이 없다.
  - ② 20~30대에 두뇌의 모든 기능이 가장 활발하다.
  - ③ 나이가 들수록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은 좋아진다.
  - ④ 40대에 접어들면서 기억력과 관찰력이 향상된다.

# ※ [44~45] 다음을 읽고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고르십시오. (각 3점)

- 44. 책 읽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 ).
  자신에게 맞지 않는 내용들을 억지로 읽고 실천하려고 하다가는 매번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결국 스스로 지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책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 ① 책을 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② 먼저 그 책이 자신에게 적합한 것인지 파악해야 한다
  - ③ 책 읽기에 앞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아야 한다
  - ④ 책에서 얻은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45.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독일의 한 연구소는 603명의 피부암 환자와 526명의 건강한 사람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과거에 감기를 앓았던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확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인체의 항체와 특수 세포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싸우는 과정에서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

- ① 이 연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다
- ② 감기가 암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③ 감기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 ④ 감기에 걸렸을 때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46~4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미디어는 단순히 매스 미디어에 국한하지 않으며, 훨씬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고안한 도구나 기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간의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을 확장하는 것은 모두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은 ( ① )의 확장이며, 문자는 ( ② )의 확장이며, 의복은 ( © )의 확장이며, 전자 회로는 중추 신경의 확장이다. 왜냐 하면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은 인체의 기능을 확장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의 미디어는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46. 위의 ᄀ, □, □에 순서대로 들어갈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십시오. (3점)

① 청각, 손, 미각

② 다리. 촉각. 얼굴

③ 후각, 눈, 미각

④ 다리. 시각. 피부

47.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미디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4점)

① 물

② 신문

③ 전기

④ 도로

# **※** [48~4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초상화는 단순히 대상 인물을 똑같이 재현해 내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 인물의 개성까지 포착한 이미지를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초상화 제작에서는 대상 인물과 화가의 거리가 중시된다. 양자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대상 인물의 인상에 압도돼서 객관적인 초상화가 되기 어렵고, 반대로 거리가 너무 멀면 대상 인물의 외적인 특성에만 치우처 ( ① ). 그래서인지 서양의 초상화에서는 대상 인물과 화가와의 적절한 거리가 통상적으로 1.5미터 내지 2.5미터 정도로 정해져 있다. 전신상을 그리는 경우는 4미터 정도가 적절하지만 대상 인물의 내면적인 정서까지 표현하려는 초상화의 경우는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48. ①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4점)
  - ① 제대로 작품을 감상할 수 없게 된다
  - ② 재현에 불과한 초상화가 되기 쉽다
  - ③ 인물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 ④ 내면의 개성까지 포착한 초상화를 그릴 수 있다
- 49.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점)
  - ① 서양에서는 전신상을 그리는 경우보다 초상화를 그리는 경우가 더 많다.
  - ② 대상 인물과 화가와의 거리가 너무 멀면 객관적인 초상화가 되기 어렵다.
  - ③ 인물의 내면적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4미터 정도가 적절하다.
  - ④ 초상화는 대상 인물에 대한 표현의 객관성을 추구하고 개성을 나타내야 한다.

#### ※ [50~5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 (가) 우리가 접하는 많은 문제들은 복합적이다. 일반적으로 복합적인 문제 들은 다중적인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다양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 (나) 가령 안락사에 대해 살펴본다고 하자. 안락사의 문제는 다양한 관점 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가?"이다. 이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철저히 사고하기 위해서는 안락사와 관련하여 윤리적, 과학적, 심리적, 경제적인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사고가 필요하다.
- 50. (가)와 (나)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나)는 (가)글의 내용에 대한 배경이다.
  - ② (나)는 (가)글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다.
  - ③ (나)는 (가)글의 내용에 대한 추론이다.
  - ④ (나)는 (가)글의 내용에 대한 예시이다.
- 51. 이 글에 대한 필자의 태도로 적절한 것을 고르십시오.

- ① 감상적
   ② 풍자적
   ③ 실험적
   ④ 논리적

# ※ [52~5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예선을 거쳐 넘어온 20편의 글 한편 한편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 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교과서였습니다. 모두 상을 받아 마땅 한 글이지만 수기로서의 골격과 감동의 정도를 가늠해 당선작을 골랐습니 다. 특히 황의영 씨의 '행복을 줍는 청소부'는 주어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글쓴이의 마음가짐이 인상적입니다. 끝으로 김민숙, 박현숙, 김 영선 씨의 글들을 ① 뒤로 미뤄놓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들도 결코 뒤지지 않은 좋은 내용이었다는 것을 아쉬운 마음으로 밝혀 둡니다.

- 52. 이 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기행문 ② 독후감 ③ 심사 후기 ④ 당선 소감

- 53. ①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언급하지 않은 것
- ② 읽지 않은 것
- ③ 추천하지 않은 것 ④ 선정하지 않은 것

# ※ [54~5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우리가 과학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철학에 대해 기대하는 바는 같을 수 없다. 여러 분야의 과학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보다 유식하고 박학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철학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철학에 대해 ①이러한 것들을 기대한다 는 것은 철학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철학은 우리를 유식하 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철학을 '지 혜에 대한 사랑'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철학은 우리를 전문인이나 지식인 으로 만들지 않고 양식 있는 지성인이 되게 한다. 따라서 철학을 배움으 로써 우리는 현명하고 올바르게 판단을 내리게 되며, 이는 결국 인간다운 삶의 기본 터전을 닦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 54. 밑줄 친 ① 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우리의 사고가 보다 분석적이 되는 것
  - ② 우리를 보다 양식 있는 지성인으로 만드는 것
  - ③ 인간다운 삶의 기본 터전을 닦도록 만드는 것
  - ④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어 박학하게 되는 것
- 55.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철학의 가치와 역할 ② 과학과 철학의 역사

  - ③ 철학의 정보 수집 기능 ④ 과학과 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 **※** [56~5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각 3점)

요즘처럼 교통과 통신 수단이 발달하기 전에는 말을 타고 전국을 달려 서 소식을 전달하였다. 그 말을 파발마라고 하였는데 한국의 지명에 있는 '구파발'이나 '말죽거리'라는 이름도 모두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옛날에는 보통 수도를 중심으로 파발마가 달려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마다 역을 세워 두었으며 이것을 역참이라고 하였다. 한 역참과 다른 역참 사이의 거리인 약 40km를 '한참'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오늘의 '한참'이라는 말 이 생겼다. '한참'이란 말은 본래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쓰던 말이니 ( 🗇 )의 언 어가 ( 🗘 )의 언어로 의미 변화를 가져온 셈이다.

- 56. 이 글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 ① '한참'의 의미
- ② '구파발'의 유래
- ③ 역참 제도의 장점
- ④ 과거의 통신 수단
- 57. ① 과 ① 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〇 주관적 개념, ① 객관적 개념
  - ②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 ③ ① 객관적 개념, ① 주관적 개념
  - ④ □ 공간적 개념, □ 시간적 개념

# **※** [58~6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말애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던 몇 해 전 봄에는 병아리를 키워본 적이 있었다. 그때도 딸애가 교문 앞 병아리 장수에게 이백 원에 두 마리를 사들고 와서 할 수 없이 식구로 삼았었다. 그때의 소동이라니. 밤새 삐약거리고 중구난방으로 집안을 쏘다니고 쉴 새 없이 여기저기에 실례를 하고……. 그렇지만 물론 또 실패였었다. 어차피 ① 그런 병아리는 길게 견디지 못하는 법이었다. 그때 딸애에게 단단히 일렀었다. 장난감 사듯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 있는 목숨을 사오는 일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그런데 아이는 또 유혹에 넘어갔다. "엄마, 이것 봐요. 눈이 별 같아. 상자 속에 수십 마리가 있었는데 이게 냉큼 내 손바닥에 올라오잖아요. 나를 좋아하나 봐. 옛날에 뽀삐를 처음 데려왔을 때도 그랬잖아요. 뽀삐 닮았어." 이제는 헤어져 남의 식구가 된 개와 닮았다는 구실로 딸애에게 선택된 병아리는 그날로 우리 집의 새 식구가 되었다. 다시 사랑 쌓기가 시작된 셈이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길게 설명했던 슬픈 추억들로 상심해 있던 나는 냉정해지고자 애를 쓰고 짐짓 그렇게 실행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딸애의 아버지도 정을 주지 않으려고 자꾸 모른 척 했다. 그도 ( ① ).

# 58. 🗇 이 의미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3점)

- ① 기르던 병아리가 죽고 말았다.
- ② 병아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말았다.
- ③ 병아리를 길들이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 ④ 병아리와 사는 데에 익숙해질 수 없었다.

#### 59.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4점)

- ① 다가올 이별이 두려웠던 모양이었다
- ②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 ③ 딸아이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모양이었다
- ④ 자신이 아이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 서운한 모양이었다

### 60. 이 글의 앞부분의 내용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십시오. (3점)

- ① 병아리에 얽힌 아름다웠던 추억
- ② 기르던 동물들로 인해 마음 아팠던 기억
- ③ 아이가 동물 기르는 것을 좋아하게 된 계기
- ④ 동물에 대한 기호가 달라서 벌어진 가족 간의 갈등